

송민규

지휘자 ·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송민규는 2025년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재직하며 음악감독 압 판 츠베덴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향의 첫 지휘 펠로십을 거쳐 부지휘자로 임명되었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국립오페라단 펠로십 지휘자로 활동했다.

2024년 귀도 칸텔리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오케스트라상과 매니지먼트 심사위원상을 함께 수상했다. 같은 해 히로시마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준우승했으며, 2022년 에리히 베르겔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오케스트라상을 받았다. 2025년에는 브장송 국제 청년 지휘 콩쿠르 세미파이널에 진출했고,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의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부지휘자 선발 과정에서 쇼트리스트에 선정되었다.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 밤베르크 심포니, 코미세 오페 베를린, 쾰른 WDR 방송 오케스트라, 밀라노 교향악단, 토스카나 오케스트라, 보훔 심포니, 트르구 무레슈 국립 필하모닉,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히로시마 심포니 등 유럽과 아시아의 20개 이상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국립오페라단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탄호이저》, 《박쥐》 프로덕션에 부지휘자로 참여했으며, 앙상블 TIMF와 함께 한국 작곡가들의 작품 초연에도 참여했다. 2025년 예술의전당 신년음악회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국립합창단을 지휘했고,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시즌 오프닝 공연도 맡았다.

데트몰트 국립음대에서 플로리안 루드비히를 사사하며 2017년 지휘 학사과정을 마쳤고,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교에서 스티븐 슬로언과 해리 커티스를 사사하며 2019년 지휘 석사학위를 받았다. 만프레트 호네크, 압 판 츠베덴, 유카페카 사라스테, 에드워드 가드너, 조너선 노트, 로저 노링턴 경, 오스모 벤스케, 요하네스 슈레플리 등의 어시스트와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했다.